

2020년,

나의 집독재 이야기.

ORBI. 오레오좋아요

*차례

0. 들어가기 전에.
1. 재수 하루 일과 및 체력 관리 + a
2. Before COVID 19
3. 상반기(3월 ~ 6월)
4. 하반기(6월 ~ 9월)
5. 파이널(9월 ~ 12월)
6. 마무리

0.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오르비의 '오레오좋아요' 입니다 ㅎㅎ.

꼭 수능을 잘 마무리하고, 어느 누군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짚막하게라도 남기고 싶었는데, 이렇게나마 소원을 이루게 되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본격적인 글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적고 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제가 느끼기로, 수능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도 꿈을 향해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곤 합니다. 또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 아래 우리의 지난 노력과 그 과정들이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너무도 가슴 아픈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만큼은, 이런 잔인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현실 아래서 너무나도 아프고, 눈물로 젖은 날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와중에도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방금 본 실모에서 점수가 개박살이 나더라도, 어제보다는 더 발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수능 따위가 규정 지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도요.

여러분들의 빛나는 하루하루를 저 또한 뒤에서 항상 묵묵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칼럼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ㅎㅎ

(칼럼은 가장 먼저는 제가 하루하루를 어떤 패턴 및 습관으로 살아갔는지 말씀 드린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한 제 1년간의 수험생활을 짚어 알려드리면서 “이것만큼은 꼭 하셨으면 / 안 하셨으면 좋겠다.” 및 실력 및 점수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핵심적인 사고들을 곁들여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활 성적 (+성적표 인 증은 제 전전글을 참고해주세요 ㅎㅎ!)

현역 (물1, 생2)

6월 : 34331

9월 : 44323

수능 : 34344

재수 (물1, 생1)

6월 : 34123

9월 : 21123

수능 : 21142

1. 재수 하루 일과 및 체력 관리 + a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은 제 하루 일과 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의 생활패턴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가장 중심이 되었던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AM

- 5:30 기상
- 5:30 ~ 6:00 등,허리 운동
- 6:00 ~ 6:30 아침식사
- 6:30 ~ 7:30 아침운동(단어 외우며 동네 한 바퀴) 후 샤워
- 7:30 ~ 12:00 오전 공부(국어, 수학 위주의 학습)

*PM

- 12:00 ~ 1:00 점심식사(개인적으로 이때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는게 절 행복했습니다 ㅎㅎ)
- 1:00 ~ 5:00 오후 공부1(영어, 수학 위주의 학습)
- 5:00 ~ 5:30 쪽잠 겸 낮잠
- 5:30 ~ 6:00 저녁식사
- 6:00 ~ 7:00 저녁운동(단어 외우며 동네 한 바퀴) 후 세면
- 7:00 ~ 10:30 오후 공부2(탕구, 수학 위주의 학습)
- 10:30 ~ 10:45 하루 피드백 및 일기 쓰고 취침.

주말 같은 경우는 이 패턴에서 약 한 시간 정도 더 자고 시간표도 조금 널널하게 잡고 여유롭게 공부했습니다. (뒷 챗터에 자세히 쓰겠지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큼은 거의 하루 종일 공부 생각 전혀 없이 푹 쉬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세부적으로 짚어서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ㅎㅎ

*PM 10:45 취침 및 AM 5:30 기상

저 같은 경우 재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것이 바로 수면패턴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반복된 수험생활이란 굴레 속에서, 무엇보다 이 수면패턴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야지 이 기나긴 일년의 시간을 혼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꼭 저와 같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무조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낮과 밤이 바뀐 상태로 집독제 하셔서 의대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다만 그분과 제가 (그리고 거의 모든 독재성공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수면패턴이 자기의 재수생활 사이클에 온연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수면패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침형 인간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혀 스스로를 자책할 것 없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게 재수 생활 사이클을 만들어 습관화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ㅎㅎ

단, 한번 자리 잡은 패턴이 깨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있어서만큼은 가족과 함께 생활 패턴을 비슷하게라도 맞춰나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밥을 먹으며 최대한 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루하루의 수면패턴을 1월부터 12월까지 잘 유지했던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AM 5:30 ~ 7:30 아침시간 (+ 저녁운동)

저 같은 경우는 재수하면서 항상 안고 있었던 걱정이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일단 초~중학생 때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좋지 않은 자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누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척추 상태 자체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고등학교 생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나름의 목표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이 허리 자세가 제게 있어서는 큰 트러블이 되더라구요 ㅠ ㅠ 디스크와 같은 아주 큰 문제는 없었지만, 척추뼈의 골격 자체가 원래는 S자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직선형으로 굽어져 버려 계속해서 등과 허리 근육의 신경을 지속적으로 건드리게 되는,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태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는 애초에 앉아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수험생이 앉지 않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ㅠ...) 이를 극복하고자, 저는 재수하면서 꾸준히 허리 스트레칭 및 허리근육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상과 동시에 30분 동안 항상 오늘 하루를 위해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 건강이 좋지 않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운동만큼은 현재 본인의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홈 트레이닝 앱'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집독재 같은 경우, 워낙 움직임이 적다 보니 변비(^ ^)가 오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 아침, 저녁 식사 후에 단어장을 들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꾸준히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왜 하나 싶지만, 번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이로 인해 고통받아 보신 분들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걷기’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ㅎㅎ

(번비약도 좋지만, 진짜 걷기만한 적병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영어 단어가 매우 부족함에도 정규적으로 시간을 따로 빼서 외울 시간이 없었는데 “운동하면서 그냥 단어도 같이 한번 외워보자”라는 마인드로 임하니 건강뿐만 아니라 영어 어휘에 있어서도 꽤나 꾸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일매일 걸으면서 외운 단어장이 총 3권입니다. 이 3권을 계속해서 돌려보니 영어 어휘에 있어서 크게 부족할 일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어느새 만년 3등급에서 고정 1등급의 반열에 까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어의 8할은 어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다녀오면 아침 7시 즈음이 되었고 이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씻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더러워서 그렇게 아니구요...)

진짜 저는 아침마다 똑같은 웃과 똑같은 표정으로 씻기 전에 거울을 보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항상 피로에 찌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 이 지긋지긋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또 실패하면 어쩌지?”, 어제 쳤던 실모 점수들이 생각나면서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와 같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을 안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내 버려두었다가 거품과 물로서 이를 씻어 버린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버려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샤워 후에 머리 말릴 즈음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드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버려내는 것이 매일의 고비이자 숙제였습니다.

특히 독학 재수를 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찾아올 감정이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막상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와 같은 감정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교과 내용을 배우기에 급급하니까요.

하지만 잠시 펜을 내려두는, 자기 자신과 오롯이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 독학재수를 하는데 있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그 순간들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ㅠ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 독재를 해 나가시다 보면 이 느낌이 뭘지 아주 잘 와닿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 꼭 이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구요.

저도 그랬고, 저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신 많은 분들도 이 과정을 모두 다 겪으셨을거라구요.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나가고 포 다듬으셨기에 지금은 각자 멋지고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되신 것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빛날 차례가 아닐까요? ㅎㅎ 매일매일이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도, 이 또한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잘 살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모든 우리 존재 파이팅!!



*평소 공부때 했던 사고들.

사실 저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그리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고, 워낙 각 과목에는 오르비에 저보다 훨씬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 이 파트에는 저의 공부법과 어떻게 공부 및 사고를 잡아나가야하는가에 관한 고찰보다는 제가 나름 그래도 공부를 혼자서 해 나가면서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적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 스케줄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저는 최대한 수능 시간표에 유사하게 제 학습 과목들을 배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전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국어 과목을 꼭 학습계획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밥 먹고 가장 졸릴 시점에 영어 학습을 배치하는 등 큰 의미는 없더라도 하루에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지만 그 시간표에 맞추어 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을 꾸려 나갔습니다.

이제 각 과목별 저의 생각과 느낀 점들을 부족하게나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국,수,영만 언급하겠습니다. 탐구는... 제가 넘 부족해서 ㅜㅜ)

국어 과목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수능 국어는 독해력을 묻는 시험이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뜬구름 같은 독해력을 어떻게 기르고 닦아나갈 것이냐는 분명히 수많은 선생님들마다 지향하시는 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독해력이라는 본질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저는 미시독해, 거시독해, 구조독해, 그외그외 등 모든 것들이 이 독해력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한 훌륭한 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시절 저는 국어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학습을 진행한 것이 지금 생각해보아도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착오들을 반면교사 삼아 다른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학습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3때 시간제한 없이 천천히 읽고 이해해나가는 공부를 지향했다가 수능때 참교육을 당한 후, (지금 생각해보면 실전경험이 너무 부족해서였는데...ㅠ) '실전적 독해'라는 명분 아래에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철학이 틀렸다고만은 볼 수가 없죠.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수능 국어는 시간제한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험이니깐요.

허나 저는 2-3월부터 위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공부를 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기출과 수능특강이나 간쓸개 및 각종 N제들을 '실전적'이라는 명분 아래서 무조건 타임어택 방식으로만 양치기로서 덩다 풀어제끼는 것이 결국 1등급 도달하지 못하게 된 패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피하셨으면 하는 생각들 : 맞았네? L.O.S~, 틀렸어도 아 어차피 현장가면 이 문제 절대 못풀어... ㄹㄹ, 내용이해 다 떠나서 문제만 맞추면 끝이지 결국 남는건 점수아니냐?!)

물론 어느 정도 양이 쌓이니 2등급 언저리까지는 올라설 수 있었으나, 1등급을 맞기 위한 독해력은 한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날 예약지문을 한 문제도 못 맞추고 다 틀렸습니다. (강한 줄로 말걸...)_분명히 제한시간안에 글을 읽는 능력을 묻고자 하는 시험은 맞습니다만, "그 글을 읽는 능력이 1년안에는 바뀌지 않아!"라고 단정지어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바른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저는 잘못된 태도로서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틀림없이 많은 것을 바꾸실 수 있을 것 입니다 ㅎㅎ! 꼭 제 뉘까지 담아 만점을 받아주세요!! ㅎㅎㅎㅎ

수학 과목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수능 수학은

<창의력 + 계산력 + 논리력>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정확하게 묻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1컷파리가 수능 수학이 뭔지를 논하나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 그냥 제 생각이 라구용 ^^ ^^ ^^ ^^...)

제가 생각하는 위의 세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식 한 줄 한 줄을 떠올릴 수 있는 힘 창의력(흔히 발상이라고 하죠.)

식 한 줄을 써 내려갈 수 있는 힘 계산력.

그렇게 써 내려간 식 한 줄과 다른 한 줄을

이어 붙일 수 있는 힘. 논리력.

이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잘 골고루 조화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가 수능 수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이 창의력과 논리력을 어떻게 길러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들을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 및 뛰어나신 오르비에 계신 여러 네임드 분들의 칼럼들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허나 부족한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교과서에 나온 발상(창의력)’ or ‘센에서 요구하는 발상(창의력)’

정도는 충분히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기출을 보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산력은**

어느 누구도 대신 길러줄 수 없는 본인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현역시절 평가원 시험마다 4등급을 맞는 주제에 감히 문제를 평가하고 설불리 재단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설지를 보고)아 개오바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 거르자!!!”

▶ 그런데, 재수때 썸을 풀며 뒤늦게 알고보니 썸 대표유형 중 하나로 박혀있네?? (or 교과서 대표연습 문제의 유형과 비슷하거나)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많았었고 제 주변, 항상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실력이 제자리인 친구들에게도 항상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즉, 이런 창의력적인 요소에 분명히 IQ나 본인의 재능과 같은 것들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근데 국어는 왜 그렇게 안했냐...;;)

교과서를 보고, 썸을 보고, 기출을 보면서(혹은 ebs) 이러한 발상적인 사고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익숙하게 될 때까지 노력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창의적인 요소도 개발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안되면 진짜 닥치고라도 다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또한 계산력도 수능에서 묻고자 하는 주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181130(가), 200930(가)만 보아도 완전 계산 문제잖아요 ㅋㅋㅋ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직하게 풀어낼 수 있는 퍼지컬을 길러나가는 것이 또한 수학 점수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뒤늦게 재수 시작 후에 조금씩 이런 나름의 깨달음을 깨우치기 시작하였지만, 그런 깨달음에 따르는 시간들이 당장에는 부족하여 6월 모의고사에는 64점이라는 점수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작년 수능도 64점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ㅋ)

허나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점점 선명해지는 이런 깨달음을 계속해서 믿음 아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니 6평 64점에서 9평에서는 96점이라는 놀라운 성적향상을, 그리고 수능에서도 기어이 92점으로 1등급을 받아내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제가 느낀 깨달음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치열하게 수능 수학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저와 비슷한, 뭔가... 직감이 오는 나만의 철학과 신념들이 분명히 생겨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철학들과 신념들을 지닌 채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노력해나가신다면 정말 누구나 (저와 같이 머리가 좋지 않아도) 1등급만큼은 거뜰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수능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이과가 같이 시험을 보게 되었으니 어찌면 100점도 순전히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ㅎㅎ)

(나형 무서 발연 아님니다 ㅠㅠㅠㅠ)

*랐던 커리큘럼이나 컨텐츠들은 뒤에서 더더 자세하게 다룰게용 ㅎㅎ

영어 과목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영어에서 후천적 1등급은 <어휘력 + 해석력 + 독해력>만 어느 정도 갖춘다면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국어와 영어 과목 모두 열심히 했지만, 두 과목에서 요구했던 지문을 이해하고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리의 깊이는 영어가 훨씬 더 얕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단 한 두 걸음만 앞선 어휘력을 갖고 계시다면 해석력과 독해력은 반 이상은 따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해석력과 독해력을 지니고 있어도 어휘력 자체가 부족하다면 접근조차 할 수 없지만, 그저 그런 해석력과 독해력을 지녀도 어휘력이 어느 정도만 뒷받침 된다면, 문장과 글의 완벽한 수준의 이해는 못하더라도, 꽤나 어느정도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처럼, 영어에서는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의 수준에서 대부분의 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어보다 논리의 깊이가 얕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재수하면서 뒤늦게 어휘력을 꽤나 갖추었더니 고2,3때 들었던 알고리즘과 리로직에서의 포텐셜이 뒤늦게 터지기 시작해서 21학년도에 치러졌던 사설 포함 모든 영어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긴 말 필요 없이, 절대평가라 알아보지 말고, 상대평가 시절의 느낌 그대로 단어 열심히 외우고, 공부량을 어느정도만 더 늘린다면 누구나 1등급을 넘어서고 고정 1등급의 위치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ㅎㅎ(저 또한 그랬구요!)

*PM 12:00 ~ PM 1:00 점심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재수생이라는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옥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 점심시간이 가물에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침 공부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 혼자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제 수험생활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고된 하루 속에서 한두 번씩은 스스로에게 자비로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지니시며 공부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도 좋고, 오르비도 좋고, 카톡도 좋고, 본인에게 가장 자극이 덜 되고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뇌를 가장 잘 Refresh해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여유를 지닌 재수생활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지만 게임과 같이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섰을 때도 잔상이 생기는 중독적인 요소들은 지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스타도 때로는 너무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며 샘이 나거나 질투가 생긴다면 그날 공부가 꼬여버리니 본인에게 맞지 않으신 분들께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PM 5:00 ~ PM 5:30 쪽잠 겸 낮잠

저에게 있어서는 점심시간 유튜브와 함께 스스로에게 가장 큰 힐링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오후까지 너무 힘들고 지치게 달려온 제 자신에게 30분 정도 침대에 누워 개운하게 잘 수 있는 시간을 주니, 허리 통증도 괜찮아지고, 남은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오전과 낮 시간을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독재생들 체력이 부족하시거나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너무 퍼지지 않게 2-30분의 낮잠시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사바사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과 시간대를 찾아서 잘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ㅎㅎ)

*PM 10:30 ~ PM 10:45 자기전 피드백

제가 생각하기로 저의 멘탈적인 요소를 가장 책임져 주었던, 저 혼자 스스로, 제 자신을 가장 잘 다듬어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플래너를 활용해 계획을 짜고, 이 플래너를 활용해 이 하루 피드백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플래너에 아침마다 공부할 거리를 주욱 적어두고 매일 밤 모든 공부가 마무리 되면 그 적어둔 계획을 동그라미 치면서 “오늘 내가 이거 배웠었지~ 아하,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와 같이 간단히 본인에게 다시 한번 배운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리마인드 한 내용들과 사고들이 생각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아서 결국은 수능을 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혹시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 했는지 궁금하시면 쪽지 보내주시면 제 플래너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ㅋㅋ 여기에 올리기에 너무 부끄러워서...ㅎ)

그리고 또한 저는 감사노트를 매일 작성했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신실한 종교인 같이 보이는데 전혀 아니구요 ㅋㅋ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에 있어서 그냥 감사했던 것들을 주욱 적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을 맛있는 고기를 먹어서 감사했다. 항상 만성 두통을 안고 사는데 오늘은 두통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은 내 자신에게 감사했다. 오늘 허리 상태가 평소보다 괜찮았던 것에 감사한다. (친구 00이 생일일 때) 00이를 친구로 두어 감사한다. 00이와 오늘 연락해서 감사한다”

등과 같이 그냥 감사노트에 오늘 감사했던 내용들을 5가지 이상 적어나갔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단순하지만 제가 걸어 나가는 이 재수 생활이 단순 수능 성적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매일을 성찰해나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위와 같이 매일을 보내니 참 고된 하루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씩은 스스로가 자라나가고 있음에 감사했고 힘든 재수 생활이지만 결국은 기어이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게 되는 마음가짐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면서 제 멘탈이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지고 강해졌고, 이것이 제 하루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로 제가 재수를 하니 매일이 참 힘들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큰 슬럼프 없이 꾸준한 페이스로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이제야 진부하게 들리던, 과정 속에서도 얻어지는 나만의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재수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독재만이 지닌 성숙과 성장의 효과겠죠 ㅎㅎ 덕분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만의 훌륭한 가치관과 철학도 나뉠 세우게 되었고, 어떤 일을 해 나가든지간에, 재수 시절의 마인드로만 살아간다면 뭘들 못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ㅋㅋ 여러분들께도 위와 같은 제 느낌이 조금이라도 와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ㅎㅎ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수능판을 떠날 수 있게 된 것 같구요!)

그럼 이제 (드디어) 2번째 파트로 넘어가볼게요!

*TIP) 독재하면서 핸드폰은요?

제가 수 많은 앱을 써 보았지만 가성비, 효율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아도 '넌 얼마나 쓰니'만한 앱은 없더라고요. 

~~똥을 수 있는 방법이 건너건너에 있다고 하던데, 그런거 제거두고(사실 이 앱이 제일 튼튼함.)~~
저 같은 경우, 독재생활을 이 앱으로 어떻게 스마트폰의 유혹 없이 버텨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핸드폰에 넌 얼마나 쓰니를 깔아주세요.

1. 제일 먼저 싸꾸 없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기기관리자를 켜주세요.

(무료 잠금 해제 사용은 본인의 의지껏 on / off)

2. 두 번째로 설정에서 잠금시 사용가능한 앱을

인강앱/알람앱/운동앱/전화, 문자앱 + a로 설정해주세요.

(저는 이 앱들 말고는 전혀 쓸 일이 없었습니다.)

3. 그리고 설정에서 폰 잠금을 들어가셔서 목표 시간 설정을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다 1분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아침에 알람 울림과 동시에 핸드폰이 자동잠금 됩니다 ㅋ)

저는 이 사이클로서 재수하는 내내 핸드폰 방해 거의 안 받고 살았습니다. 애초에 아싸라 연락을 알아 갈 없어도... 친구들이랑 연락 자주하셔서 갑작스럽게 연락 끊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친구들께 본인 재수한다는 사정을 잘 말하신다면 다들 이해해주시고 오히려 더 응원해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재수를 하는 친구들과도 웬만해서는 독재하면 연락 안 하시는 방향으로 계획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공부를 해야하는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 및 여러분의 친구분 시간 모두 다 날아가고 사람 심리상 한번 잠깐 판길로 새면 "강 오늘은 좀 쉴까?" 이런 생각이 들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 근데 왜 일주일에 하루는 잠금 안 하나요?

: 차후 뒤에서 제가 어떻게 재수를 했는지 말씀 드릴 때도 언급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온전히 쉬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순전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일주일 채우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를 똑같은 패턴으로 1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6일을 열심히 살아간 자신에게 여유와 보상을 허락해주시고 새 6일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간 주로 대부분 하루 종일 영화나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지난 6일동안 공부에 찌든 뇌를 푹 쉬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난 한 주동안 핸드폰 사용에 불편했거나 고칠 점이 있다면 이 날을 활용해 수정해나가고 보완해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중간중간 불편할 때마다 고치려고 하다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ㅠ)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퍼지거나 지치지 않고 수능을 치는 그 순간까지 잘 버려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그러면 유튜브는 점심때 어떻게 본 건가요?

: 저는 집에 부모님께서 쓰시던 엄청 안 좋은 공기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게 유튜브 말고는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았습디다 ㅋㅋ 그래서 그 공기계를 활용해 짬짬이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나마 유튜브도 화질 겨우 낮춰서 봐야하는... 라디오가 따로 없었죽ㅋㅋ)

그리고 그 공기계를 항상 부모님 방에 가장 잘 보여는 곳에 놔두었다가 딱 점심때만 가져가기로 부모님과 약속을 해서 행여 그 공기계를 활용하여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미리 조치도 취해두었습니다. 저같이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년얼마나쓰니를 예약시간제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제로 하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ㅠ)

2. Before COVID 19

저는 처음에 독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경제적 요인이 제일 컸습니다. 고등학교 내에서도 공부를 나름 곧잘 하는 편이어서 부모님께서도 기대가 크셨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드린 죄송함과 이런저런 이유로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막연히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하나만 바라보고 독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ㅋㅋ

처음에는 사실 독재를 집독재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재수를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저 스스로에 대한 실력을 과신하다가 20수능에서 제대로 참교육을 당한 뒤, 기초부터 다시 완벽하게 다진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즈음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커리큘럼을 다 결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커리 결정을 모두 끝내고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나가는 1월부터 3월말까지의 바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지가 독재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치 재종을 다닌다는 마인드로 하루하루의 일과를 모두 다 스스로 시간표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집독재 하시는 분들은 6평이 가까워질 수록 점점 헤이해지고 지쳐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즌이 오기 전에 스스로를 마치 재종 시간표에 익숙해져 가듯이 본인이 만든 스케줄에 자신이 완전히 녹아들어가게 된다면 이 지치고 느껴지는 위험한 기간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연하게 형식적인 시간표를 짜는 걸 넘어서서, 마치 스스로가 오로지 본인만을 위한 재종학원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기획해나갔습니다.

평일에는 국영수는 대부분의 정규반들이 그러하듯이, 본인이 듣는 인강 선생님들을 아침 및 오후 시간표에 배치해 주시고(~~??? : 한석원 원장님... 오전에 과외 좀 부탁 드립니다~~ →) 탐구는 학생 선호에 따라서 두 과목을 저녁시간에 격일로 운영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배치해주시고!

또 매일을 똑같이 살면 재미가 없으니, 주말마다는 현장을 다니는 것처럼, 보조 커리큘럼 등을 도입해서 특강형식으로 주말을 맞이하게 한다든지, 또 한 달마다 모의고사 데이를 본인이 구성하여 진행해 본다든지, **은근히 본인이 일주일, 한달을 새롭게 운영하며 만들어 나가는 재미를 독재하시면서 느껴보시면, 그게 또 하나의 독재가 잘 굴러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ㅎㅎㅎㅎ**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정말정말 중요한 것인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진짜 독재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진짜 마음껏 노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10월 ~ 11월즈음 가면 초반부터 무리한 것이 체력적으로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빼고 쉬었던 것이, 12월 수능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쉬이 새 한 주를 굴러갈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기반이었구요!

(저는 월요일이 제 휴식날이었는데요, 이 날만큼은 잠 실컷 자고, 보고싶은 영화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대부분 보냈습니다. 가끔씩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저녁 먹고부터 일주일의 계획 가볍게 짜거나 저번주 공부한 내용 복습하는 수준에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고로 전 수능 전주까지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째로 쉬었습니다.)

1월 ~ 3월 시간표 예시 :)

오전 1교시 ~ 3교시 / 오후 4교시 ~ 6교시 / 저녁 7교시 ~ 8교시

(간단한 자습 시간들은 다 한 교시 한 교시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ㅎㅎ)

	월	화	수	목	금	토	일(수업 데이)
0교시	X	하루계획 짜기 및 간단 자습	하루계획 짜기 및 간단 자습	하루계획 짜기 및 간단 자습	하루계획 짜기 및 간단 자습	하루계획 짜기 및 간단 자습	하루계획 짜기 및 간단 자습
1교시	X	백문무답	독서의 시작	백문무답	독서의 시작	인문학 책읽기	(특강)AOB
2교시	X	구속도감	비기너스	구속도감	비기너스	일주일 국어 복습	(특강)AOB
3교시	X	비기너스	비기너스	비기너스	비기너스	수학 복습	(특강)AOB
4교시	X	고경재t 강의	영어 수특 문 풀	고경재t 강의	영어 수특 문 풀	(특강)이미지 트레이닝	(특강)파블로 프
5교시	X	썸 문제풀이	썸 문제풀이	썸 문제풀이	썸 문제풀이	(특강)이미지 트레이닝	(특강)파블로 프
6교시	X	썸 문제풀이	국어 문풀	썸 문제풀이	국어 문풀	썸 문제풀이	썸 문제풀이
7교시	일주일 공부 홀어보며 복습	올어바웃 및 생명 학습	물리 문풀 학 습	올어바웃 및 생명 학습	물리 문풀 학 습	올어바웃 및 생명 학습	물리 문풀 학 습
8교시	일주일 계획 짜 기	올어바웃 및 생명 학습	물리 문풀 학 습	올어바웃 및 생명 학습	물리 문풀 학 습	올어바웃 및 생명 학습	물리 문풀 학 습

위와 같은 시간표를 일단 구상하고, 제가 직접 한주 한주 경험해보면서 최대한 저에게 제일 맞는 시간표를 작성한 것이 위와 거의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실제로 이 패턴이 재수 시작하고 한 달즈음 지나서는 거의 익숙해졌고, 이러한 시간표에 맞춰서 도서관 독재를 대략 두 달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대략 1월초부터 2월말까지, 도서관에서 제가 진행했던 세부적인 과목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는 일단 김민경 선생님 강의를 오리에 흘려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풀커리를 타겠다고 의욕 넘치게 시작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단순명료하게 하나의 태도로 모든 걸 다 뚫고 나가십니다. 이때 당시는 정말 독해력이 본질이라는 것을 잘 몰랐을 때여서 뭔가 배우는 게 없는 것 같구, 강의를 듣는 게 내 실력이 느는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현재 구속된 그 분의 커리큘럼으로 갈아 타게 되었습니다. (갈아탄 시점이 딱 2월말이었습니다.)

문학만큼은 정말 '그 강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 것도 사실이고, 덕분에 문학이 거의 안정적인 수준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독서에서만큼은 사실 뒤늦게 생각해보았을때, 김민경 선생님의 강의를 끝까지 탔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수학은 호형훈계 선생님들의 강의를 믿고 수강 했습니다. 고3때 무슨 강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의 AOB를 듣고 훌쩍 반해버렸고, 그 이후 호훈교에(당시에는 대중화 되지 않았지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역때의 수학 성적은 처참했지만, 항상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정확한 신념으로 이끌어주시려는 노력이 수업 중에도 계속 느껴져 선생님들의 강의를 계속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1~3월즈음까지는 컨텐츠들은 대략 비기너스 수학1, 수학2 및 썸 고등수학 상,하,수1,수2까지 끝냈습니다.

(+ 진짜 거의 대부분 수학만 했음에도 이 정도밖에 못한 것은 이 당시에 문제를 단 한 문제라도 거르면 대학에서 걸려진다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썸을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고, 비기너스에서 그 많은 문제를 정말 미친 건지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ㅋㅋ : 여러분은 효율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면 공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ㅋㅋ)

영어는 초반에는 나논독을 들었으나, 제가 체화하지 못할 것 같아 이리저리 찾던 중 고정재 쌤의 압도적인 강의력에 엄청난 인상을 받고 고정재쌤의 풀커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영단어를 계속해서 외우려고 많이 노력했고, 꾸준히 주1회씩은 기출 실모 풀면서 실전력도 키우고자 초반부터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절평이지만 저는 진짜 상평처럼 공부하고자 많이 노력했어요!)

생명과학은 생명은 윤도영쌤을 들었고, 물리는... 혼자서 해보겠다는 패기로...(STAY...STAY...) 자이스토리과 파렉을 혼자 사서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 (배기범 강의를라도 좀 살걸 ^^)

그러나...2월 19일부터 대한민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ㅋㅋ

특히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 코로나 첫 대폭발이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 도서관은 갑자기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 버렸고, 주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초도화 된 당시의 상황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생생하네요 ㄷㄷ..

사실 저의 집독재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시작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집독재가 수능 끝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단 2-3주 정도 후면 몇 년전 메르스처럼 진정이 될 줄 알았으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ㅎㅎ

그래도 저는 정말 우연찮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만의 탈출구를 잘 찾았고, 집독재가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잘 이끌어줄 수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ㅎㅎ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독재를 하시다보면, 뭔가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플랜들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저와 같은 마인드로 '인간만사 새옹지마' 딱 한 번만 생각해주시고 "갓직히 하늘이 나에게 마련해준 더 큰 빅 픽처가 있을거임...크ㅇ!!" 딱 이 마인드로 모든 이벤트들을 맞서 나가신다면, 독재 멘탈 관리의 절반은 넘게 성공하신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 말이 분명히 와닿는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ㅎㅎ

3. 상반기(3월 ~ 6월)

굉장히 갑작스럽게 집독재를 시작하게 되고 처음에는 파트1에서 제시한 것처럼 완벽한 스케줄을 구사하지는 못했습니다. 파트1에서 보여드렸던 완성된 하루 스케줄은 모두 3월에서 6월의 시행착오들을 잘 반영하여 7월부터 완전히 그대로 적용해 나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제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콘텐츠를 학습했는지의 내용은 앞으로는 간단하게 브리핑 형식으로만 진행할 예정이에요!(감상을 다 담아서 쓰기는 양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요 ㅠ)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주관적인 감상과 후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ㅎ!

본격적인 상반기 학습 내용 언급을 들어가기 전에 특히 **집이나 독서실**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6월, 9월 평가원 시험을 본인의 모교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본인의 모교에 가서서 원서접수하시고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ㅠ)

6월 혹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하기 약 2개월 반 정도 전에, 평가원 홈페이지를 매일 들어가셔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 않은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 내려간 상태인데,) **평가원에서 대략 2달반 전에 6월과 9월 모의평가 비학원생 시험응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전국의 학원리스트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학원리스트들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추후

학원에 연락 및 방문을 하셔서 꼭 중요한 이 6월, 9월 두 시험을 현
장 분위기 속에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원서 작성하실 때 학원에 문의해보셔서 꼭 첫날 제일 이른 시각에 가셔야 합니다. 진짜
마감속도 지방이고 서울이고 상관없이 다 엄청 빠릅니다!! 안 되면... 모교 가야죠 ㅏㅏ)

이제 상반기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계속 써 나가보도록 하겠
습니다 ㅎㅎ

국어 같은 경우는 '그 강사의 풀커리'를 6월까지 계속 수강하였습니
다. 그리고 동시에 홀수 기출문제집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병행 학습
을 해 나가며,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리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었죠... 제가 지
금 보아도 참 아쉬움이 남는 공부 방식이네요 ㅠㅠ.)

수학 같은 경우는 메인 커리로는 비기너스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썬 미적분, 확통과 함께 한 문제도 빠짐 없이 진행하고자 노력하였
으며 side 문제집으로는 '올림포스 고난도'(ebs에서 나온 블랙라벨 같은 내신형
고난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 참고로 이름만 보고 만만하게 보실 수 있는데 꽤나 수능과 유사
하게 다듬어진 내신형 문제집이라 저는 만족하고 풀었습니다.)의 전 시리즈를 (수1, 수
2, 확통, 미적)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 특강 차원에서 안성현 선생님의 이미지 트레이닝 수학2
와 미적분을 틈틈이 수강했는데요. 진짜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호감
이셨고, 수업 내용도 딱 특강 차원에서, 서브 커리로 학습하기에 너
무나도 알찬 구성이어서 진짜 만족스러웠습니다.

허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나가며 그저 완성
하기에만 급급해서 6평전까지 실전연습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막연히
문제만 답다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크래서 6평 64점이...공 ㅋ

영어 같은 경우는 ebs 수능특강을 꾸준히 혼자서 풀어나갔고, 고정재 선생님의 2017년용 구문2 / 독해2를 틈틈이 수강해 나갔습니다. 진짜 고정재 선생님이 올해부터는 인강을 안 하셔서 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압도적 영어 원탑 선생님이셨습니다 ㅋㅋ

과탐은 그냥 윤도영 선생님 풀커리를 거의 완강할때에 다다르니 6평 전주여서.. 허겁지겁 풀다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나있더라구요 ㅎㅎ;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는 자이스토이 전문항 1회독 및 파렉과 수능특강을 거의 마무리 하고나니 6평 직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리에서 제가 이 시기에 그냥 꾸준히 감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용수철 및 각종 고난도 유형들을 접하지 않고 기출수준의 문제들만 풀면서 스스로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한 부분이 결국 수능에서의 패망을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물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리 같은 경우 정말 이 상반기 시즌에 진짜 어렵게 제대로 역학 하나를 제대로 잡는 생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 단원은 정말 익숙해지고 양치기만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허나, 역학을 대충 공부해둔 상태에서 저처럼 6월, 9월에서부터 뭔가 좀 싸하다가 수능 직전에 각종 실모 풀면서 뭔가 망한 느낌이 들면 진짜 망한겁니다!

저처럼 감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무작정 개념 n바퀴를 돌리시기보다는 정말 이 상반기 시즌에 역학 하나만큼을 진짜 끝냈다는 생각으로 박세게 어렵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 깊은 후회에서 나오는 가슴 아픈 조언입니다 ㅠㅠ

4. 하반기(6월 ~ 9월)

노력했던 것과 달리 저는 6평을 굉장히 망했습니다.

작년 수능 성적이 34344였는데 6평 성적이 34123으로 눈에 띄어만 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영어밖에 없었으니깐요. 특히 수학이나 국어에 있어서 나름대로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오히려 작수대비 더 떨어져서 굉장히 우울했던 6평 당일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능의 느낌 그대로, 망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었고, 여태는 오로지 개념만 파면서 사고의 폭을 깊게 하는 공부를 해 왔다면, 이제 남은 9평부터는 이 사고를 실모도 조금씩 풀면서 날카롭게 다듬어보자는 공부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실제로 6평 망한게 지금 보면 ㄹㅇ 신의 한수였죠? ㅎㅎ 인생만사 새옹지마!! ㅎㅎ)

6평을 망한 후, 6월 남은 한 달 동안은 6평때의 내용을 계속 복기하고 반추하면서 이제는 사고의 날카로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한 점수로 발현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6평전까지 끝내지 못했던 비기너스를 비롯한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인강을 빠르게 완강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꺼워진 사고를 점수로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는 인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정말 혼자서 우직하게 걸어 나가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자습의 비중을 높여가기 시작했던 저의 여름 날이 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확하고 꼼꼼한 독해를 길러 나갔어야 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본격적 양치기를 시작했습니다 ㅋㅋㅋㅋ 그전까지는 인강과 병행하면서 학습하느라 똑바로 양치기를 못했다고 생각하여서 ㅋㅋㅋㅋ... 밀린 간쓸개 수십권이랑 교육청 모의고사들을 두달쯤 안 되는 시간에 다 해치웠던 기억이 나네요 ㅎㅎ;;

이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귀납적으로 문학 같은 경우는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나름의 기준선이 잡혔던 것 같고(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독서 같은 경우도 하도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 문제들을 풀어보니 간혹가다 운이 좋다면 꽤나 높은 정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 6월까지 해서 개념학습을 끝낸뒤, 거의 문학과 맞먹는 비중으로 압도적 양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문법 문제들은 다 구해서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나름 개념 자체의 정확도도 많이 올라갔고 개념을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속도 자체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럼 뭐하냐고 ㅋㅋㅋ 수능때 틀려버리는당 ㅠㅠ)

진짜 정말 순전히 공부 양치기로서 저 같은 경우는 3컷 근방에서 2등급 라인까지 겨우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저보다 훨씬 더 올바르게 정확한 양치기로서 고정 1등급에 수렴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학 경우는 제가 사실 이 개념과 세 수준에서의 발상력이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기출을 보지 않겠다는 괴상한 신념이 있어서 ㅋㅋ 정말 개념자체가 완성됐다고 느껴지는 6월말이 다 돼서야 오버더 / 인투더 기출분석(현 트윈기출)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순간의 저만큼은 정말 기출의 한 글자 한 글자 다 씹어먹겠다
는 마인드로 정말 기출에서의 사고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고 왜 이렇게 연결 되어야 하는지, 그동안의 쌓은 개념을 기반으
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이해해 보고자 노력했습니
다.(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버더와 트윈기출이 진짜 정말 해설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버더 / 트윈기출이기에 이런 비약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출 자체를 다 씹어먹고 여기서의 사고의 기억을 잘 유지하
고 있었기 때문에 기출 학습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교육청 문제
나 여러 다n제들을 풀기 시작할 때 기출과의 발상 유사성이라든지,
묻고자 하는 개념의 유사성등을 정말 잘 파악하면서 n제 학습을 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학 n제도 많이 풀었는데 이는 추후에 따로 빼서 컨텐츠 리뷰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ㅎㅎ -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ㅠ)

또한 중간중간 특강 차원에서 주말에는 AOB를 필요한 파트 위주로
학습하였습니다.(다 듣기에는 볼륨이 너무 커서요 ㅠ)

이렇게 수학 또한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진행하였는데요. 국어와는
다르게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자리 잡힌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한 양치기였기 때문에, 똑같은 양치기를 하였어도 추후에 얻어낸 결
과가 이렇게나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꾸준히 어휘학습하고 각종 기출 및
ebs와 이명학 모의고사 아카이브를 대량으로 풀어나가다보니 어느
순간 내재 되어 있던 영어 포텐셜이 터지기 시작하여 그래도 유일하
게 저에게 있어,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한 과목이었습니다.

(영어는 제가 생각하기로 그 포텐셜을 열어준 열쇠가 압도적인 양의 어휘를 학습하고 공부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완성까지 한 바퀴를 다 돌린 후에는 대성 이영수†의 스팟라이트를 사서 격일로 번갈아가며 연계와 비연계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학습해 나갔습니다.

(진짜 올해부터는 이 스팟라이트의 그 어마어마한 위상이 지나간 과거의 영광이 된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ㅠ ㅠ 제 기준, 시중에 존재하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독학서 원탑이었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도 역시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경험을 어떻게든 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치기도 제 수학처럼 포텐이 터져넘치는 양치기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양치기도 제 국어나 과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제 점수를 위해서 양치기를 해야겠다” 와 같은 생각보다는, “이제 사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어나가는 연습이 되었으니 이 사고를 이제 시험을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는 연습을 양치기를 통해 해야겠다.”와 같은 현재의 위치 및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갖고 닦자는 생각을 바탕으로 양치기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계속 말씀 드리지만, 국어/물리/생명에서는 진짜 단순히 양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이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 수순을 밟아나가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돌아가는 길 없이 안정적으로 목표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계속 곱씹으며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 송원에서 삼수 준비하면서 이 내용들이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ㅠ 나중에 훌륭한 교사가 되어 제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줘야지요 ㅎㅎ)

(예 : 물리 용수철에서의 어떤 접근 원칙 정할 것인가? 혹 생명에서 주어진 여러 자료들 중에서 정보의 위상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리고 국어 지문에서 이해가 안될 때 어떻게 어떤 사고를 취해야 할까?)

다음 사진은 제가 풀었던 컨텐츠들입니다! ㅎㅎ

꼭 시간 더 있을 때 정말 자세하게 리뷰 하나하나 해볼게요 ㅎㅎ!!

(여기 있는 책들은 다 풀었던 책들이에요. 중간에 드랍한 것들은 리뷰할 때 추가적인 사진들과 함께 왜 드랍했는지, 어떤 부분은 좋았는지 등등.. 여러가지를 자세하게 함께 다루어볼게요!! ㅎㅎ)



5. 파이널(9월 ~ 12월)

*(9월 초)이 시기에 수능 원서 접수 하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ㅎㅎ 젤 중요합니다 ㅋㅋ

그렇게 정말 많은 양을 스스로 고민하고 곱씹어보니,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일단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했었습니다.

6평 34123에서 9평 21123까지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때 탐구도 각 컷에서 1,2점씩이 모자라서 아마 등급에서 밀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9평을 나름 잘 보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오히려 수능에서 더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9평을 나름 만족하게 치고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같았습니다. 목표는 의대최저를 맞추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4합5가 되지 않아서 더더 열심히, 또한 9평이 운이 좋았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더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거의 전과목에 있어서 실모를 진짜 많이 풀면서 사고의 전개속도 자체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실모도 엄청엄청 많이 풀었습니다. 꼭 이것도 날 잡고 리뷰 써 보도록 할게요 ㅎㅎ)

동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지나치게 실전력에만 의존한 나머지 제 9평 점수상승의 가장 기저에 있던 사고의 폭을 또한 함께 길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9평에서 거의 정체된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봅니다 ㅠㅠ

(전과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ㅠㅠ)

이 파이널 시기에 특히 집 or 독서실 재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조금씩 이제는 제약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집이나 독서실과 같은 편한 장소에서만 공부하다가 수능장과 비슷한, 즉 여러 사람들을 피치 못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저희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장소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를 미리 잘 준비하고자 스터디카페를 주 1회씩 활용했는데, 정말 이날만큼은 수능날이라고 생각하고 실모시험지들과 omr 및 가채점표만 준비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스터디카페에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형식으로 하루를 경험하는 연습을 9평 이후부터 꾸준히 가졌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혹은 독서실만 공부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환경 속에서 시험을 치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본인에게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험응시 경험이 있어야 수능장에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제 행동 영역이 생깁니다. 모든 것은 제가 스터디카페에서 경험한 실제 사례들인데요.

*갑자기 시험을 치다가 머리가 아픈게 느껴지네...?

> “아 타이레놀 주머니에 2개 넣고 시험봐야겠다.”

*아 책상이 좁아서 계속 시계가 바닥에 떨어지네..

> “아 수능장 가서는 책상 옆에다 시계 테이블로 붙이고 시험봐야겠다.”

*와 이거 잠깐만 집중하다보니 바지에 땀이 너무 찬다... 이거 너무 신경쓰이는데;;;

> “시험장에서 복장도 ㄹㅇ 진짜 중요하구나. 잘 선택해서 제일 최적화된 복장 계획을 세우자!”

와 같이 어느 정도의 분위기와 압박 속에서 시험을 치르니, 제 학업적 이외의 요소에서 내 점수를 갉아먹을 수 있는 방해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해요소들을 사전에 최대한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능장에 들어가서는 어떤 외부적 요소나 운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완전 백퍼센트 정확한 저의 실력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ㅎ (찍어서 맞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실수를 2개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죠 ㅋㅋ 그리고 이것 또한 ㄹㅇ 순수 제 실력이니까요 ㅎㅎ)

그리고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함이 심해지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저는 특히 잠을 못 자는 케이스였는데요, 내과 의사이신 저의 이모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경우 짧은 기간 한정해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분들께서는 내과에 방문하셔서 약간의 수면제를 복용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모든 요소들에서 치열한 여름날의 하루와 크게 다를 것 없이, 매일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외부적 및 자기 내적 요소를 잘 통제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6. 마무리.

안녕하세요. '오레오좋아요'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썼지만, 제 자신이 오늘로서 처음 제대로 된 글을 적어보는, 매우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요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ㅠ_ㅠ 미리 이점에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ㅠ_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예상치 못한 응원과 관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수능판을 떠나기 전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너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닌,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읽으시다가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 남겨주시면 번개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여러분 한분 한분을 위해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회에 나아가, 계속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미래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칼럼이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4 오레오좋아요 드림.